

## 도시와 문화

— 셴 도의 문화정책(1919-1939)\* —

류 은 하

- I. 머리말
- II. 문화의 대중화 논쟁과 문화정책
- III. 셴 도 코뮌들의 문화정책의 목적
- IV. 문화 프로그램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전간기 셴 도의 코뮌 행정부들은 오랫동안 부유층의 특권으로 간주되었던 문화를 대중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문화의 대중화 논쟁은 1920년대 본격화되어 1930년대 중반 인민전선 시기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민전선 정부는 문화정책을 통해 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하려고 했다. 1920년대 셴 도의 일부 코뮌에서는 대중의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했지만, 인민전선 시기 정부의 정책으로 확산되었다. 코뮌 마다 문화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양했는데, 시청 장악 또는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 지역민들의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 및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을 목적,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도덕적인 목적, 그리고 대중 교육적인 목적 등을 포함했다. 시에 의해 시도된 문화의 대중화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영화 관람, 음악 활동, 스포츠 활동 등이었다.

---

www.kci.go.kr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S1A5B5A07063815).

## I. 머리말

“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이라는 의미로 시작된 문화정책을 개괄하는 것은 “공공 개입의 범주로서의 문화 형성”을 추적하는 것이다.<sup>1)</sup> 왕국의 관점에서든 공화국의 관점에서든, 문화정책은 “예술적 유산을 보호하거나 예술 활동을 고무시키는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sup>2)</sup>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제에서 문화정책은 주로 국왕이나 영주들의 예술가 옹호와 관련이 있거나 왕립 아카데미 또는 왕립 극장 설립에 국한되었고,<sup>3)</sup> 문화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도 왕가나 귀족들을 포함하는 상류층이었다. 19세기 들어 문화정책은 1806-1807년 법령에 의한 4개의 국립 극장<sup>4)</sup> 재정비처럼 여전히 정부에 의해 상류층을 위해 주도되었지만, 19세기 중엽 이후 ‘문화의 대중화’가 시도되어 대중 도서관(bibliothèques populaires), 대중 극장이나 대중 음악당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sup>5)</sup> 대표적인 예로 대중을 위한 콘서트들이 오케스트라 단장 에두아르 콜론느(Édouard Colonne)에 의해 시도되었고, 1895년 ‘인민 극장(Théâtre du Peuple)’이 모리스 포테셰(Maurice Pottecher)에 의해 보쥬(Vosges) 지역에 설립되었다.<sup>6)</sup>

1) Vincent Dubois, *La Politique culturelle*(Paris: Belin, 1999), p. 9.

2) Jean-Michel Djian, *La politique culturelle, la fin d'un mythe*(Paris: Gallimard, 2005), p. 9.

3) 한 예로 리슐리외 추기경은 1635년 지식인들의 학술단체인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설립했으며, 루이 14세는 1669년 ‘오페라 드 파리(초기 Académie d’opéra로 설립)’와 1680년 국립 극장인 ‘코메디 프랑세즈’를 창립한 후 콜베르에게 예술, 건축, 산업 등을 관장하게 했다.

4) 오페라(Opéra national de Paris), 코메디 프랑세즈(Comédie-Française 또는 Théâtre-Français), 오데옹(Théâtre national de l’Odéon), 오페라-코미크(Théâtre national de l’Opéra-Comique)를 일컫는다.

5) Vincent Dubois, *La Politique culturelle*, p. 53.

6) 파리에서도 1900년 파리 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추어 ‘인민 극장’ 설립을 위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조사 작업을 위해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나 이 안건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파리 ‘인민 극장’은 인민전선 시기 공산당의 주

제3공화국 초기 정부는 예술에 대한 간섭보다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폈고, 정부의 역할은 “문화를 이끄는 것이라기보다 보호하는 것”<sup>7)</sup>이었다. 정부가 개입한 것은 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역사적 유산이나 문화유산 보호였고, 이러한 역할은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문화정책의 개념인 “다양한 문화 자산들이나 문화 사업들 생성 및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sup>8)</sup>과 유사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노동자들의 여가’나 ‘대중 교육’이 정부의 주요 관심 분야로 바꿨지만, 문화정책은 1920년대 점진적으로 시도되었고 인식이나 재정 및 재원 부족으로 제한적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대중화는 인민전선(Front Populaire) 시기에 기획되었는데, 인민전선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적으로 “엘리트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했다.<sup>9)</sup>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의 창설은 1959년에 이루어졌고, 제5공화국 초기 문화부의 주요 역할은 인민전선 정부가 추구했던 것을 이어받아 ‘엘리트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의 특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진정한 문화정책’의 시작은 문화부가 창설된 이후인 1960년대부터 라고 알려져 있고, 문화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도 이 시기 이후부터 이루어졌다.<sup>10)</sup> 제3공화국 초기에는 ‘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

---

도로 설립되었고, 다양한 지식인들, 작가들, 음악가들이 대중에게 문화를 선사할 목적으로 참여했다.

- 7) Vincent Dubois, *La Politique culturelle*, p. 89.
- 8) Xavier Greffe et Silvie Pflieger, *La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5), p. 7.
- 9) Pierre Moulinier, *Les politiques publiques de la culture en France*(Paris: PUF, 1999), p. 15.
- 10) 대표적인 연구로 앞서 각주에서 인용한 바 있는 Vincent Dubois, Jean-Michel Djian, Pierre Moulinier의 연구서들을 들 수 있고, 이들의 연구들은 ‘공식적인 문화정책’의 시작을 1960년대로 잡고 있다.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탈중앙화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연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방자치제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자들이 양주, 발-드-마른, 코르시카, 파리 지역 등 특정 지역의 문화정책을 연구했다. 예를 들면 Association des petites villes de France, *Guid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s petites villes*

되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국립미술학교 주도의 문화 방침을 ‘예술 문화’ 또는 ‘예술에 대한 공공적 감정’이라 표현했다.<sup>11)</sup> 이 시기 문화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국립미술학교였으며, 정부는 예술에 대한 ‘자유 방임정책’을 고수하여 국립미술학교 방침에 간여하지 않았다. 당시 ‘예술의 탈중앙화’와 ‘정치적 탈중앙화’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sup>12)</sup> 이것은 지역 단위의 대의 민주주의 및 제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1884년 4월 5일 ‘시 조직에 관한 법’의 결과로서 나타났다. 특히 급진주의나 사회주의 코뮌(Commune) 행정부들은 1884년 4월 5일 법을 행정적 탈중앙화를 이루고 ‘경제적 근대화’와 ‘문화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다.<sup>13)</sup>

(Paris: Dexia, 2006),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La politique culturelle des agglomérations*(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Île de France,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Médiation culturelle et politique de la ville*(Paris: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2003) 등이 있다. DATAR의 연구에 따르면 1995년과 1999년 지역 재정비에 관한 법들은 지역 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발전 부분을 포함하며, 정부는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문화 전문가 모집, 지역의 문화 프로젝트 실행 및 범 지방자치제적인 문화정책 시도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 창설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는데,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화부 창설 이전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간기에 국한되었는데, 중앙이나 지역 행정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이 시작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이다. 인민전선 시기 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했던 정부의 영향으로 일부 코뮌(commune) 행정부들이 문화정책을 시도했지만 주로 인민전선 정책이 동조하는 코뮌들에 국한되었고, 연구도 이러한 코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전간기 코뮌 행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Sylvie Rab, *Culture et banlieue. Les politiques culturelles dans les municipalités de la Seine(1935-1939)*, Thèse d'histoire(Université Paris-7, 1994) 그리고 Pascal Ory, *La politique culturelle du Front populaire français. 1935-1938*, Thèse d'histoire(Université Paris-10, 1990) 등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민전선 이전 시기의 문화정책은 코뮌들 연구나, 영화 또는 스포츠 관련 연구를 통해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11) Philippe Poirrier, Sylvie Rab, Serge Reneau, *Jalons pour l'histo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locales*(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1995), p. 31.

12) *Ibid.*

13) *Ibid.*, p. 32. 한편, 이 법으로 인한 지역 행정부의 중앙 행정부에 대한 상대적 독립에 관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 「파리지역 시의회의 사회정책(1919-1939)」,

1930년대 중반까지 정부와 센 도(département de la Seine)<sup>14)</sup>에서 공식적으로 추구했던 문화정책은 거의 부재한다고 볼 수 있다. 『파리시 공식 시보(市報)』(*Bulletin municipal officiel de la Ville de Paris*)는 센 도의회의 회의록, 경찰청 보고서 등을 실고 있는데, 센 도의 대민(對民) 재정은 실업자금 보조, 교육 보조금, 공공사업 보조금 등 사회 및 공공정책에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간기 센 도에서 코뮌별로 ‘비공식적인’ 문화정책이 시도되었는데, 이것은 “도시에 만연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sup>15)</sup> 코뮌 행정부들의 움직임이었다. 이로써 시 차원에서 문화정책의 초보단계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던 문화적 혜택을 대중에게 확장시키려 했던 인민전선 시기 진전되었다. 기존의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시기를 다루거나 중앙에서 이루어지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이 거의 부재했던 전간기 지역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 센 도의 코뮌들에서 시도되었던 문화정책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선 문화의 대중화 논쟁이 문화정책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이 시기 센 도의 코뮌들이 내세웠던 문화정책의 목적과 이들이 문화정책의 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영화, 음악 활동, 스포츠 분야를 살펴볼 것이다.

## II. 문화의 대중화 논쟁과 문화정책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한 부르주아 문화에 대치되어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문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양사론』 제140호(2019. 3.) 참조.

14) 센 도는 1790년 창설되어 1968년 1월 행정 구역 개편까지 유지된 파리와 파리 근교를 포함하는 도(道)로서, 1964년 7월 10일 파리 지역 개편에 관한 법률로 인해 1968년 1월부터 파리(Paris), 오-드-센(Hauts-de-Seine), 센-생-드니(Seine-Saint-Denis), 발-드-마른(Val-de-Marne)으로 분할되었다.

15) Île-de-France,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Médiation culturelle et politique de la ville*, p. 256.

이었지만, 논쟁의 진척이 이루어진 것은 1920년대였고 인민전선 시기까지 이어졌다. 이 논쟁은 대중과 문화의 관계 및 지식인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졌고, 논쟁의 두 축은 문화의 자율성 및 부르주아 문화를 옹호하는 문학계와 이에 반대하며 프롤레타리아 문화를 강조하는 공산주의 운동과였다.<sup>16)</sup> 1930년대 중반 이 논쟁이 부르주아 문화와 프롤레타리아 문화 간의 절충으로 결론지어 질 때쯤, 대중을 위한 문화와 관련해 ‘정책적 전환점’이 발생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지식인들을 동원하여 문화의 대중화를 시도했다. 특히 1934-5년부터 프롤레타리아 문화와 부르주아 아방가르드 문학은 파시즘에 대항하는 ‘문화의 보호자’로 간주된 것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문화를 위협하는 파시즘(*fascisme contre la culture*)’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었다.<sup>17)</sup> 즉 프랑스 공산당은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 문화와 부르주아 문화의 대립을 주장하지 않고, 국가 공동 유산의 보존과 충실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화의 보호’에 동조한 것은 공산당뿐만 아니었고, 좌파 지식인들과 작가들도 참여하여 이러한 목적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회를 설립했다.<sup>18)</sup>

반파시스트 연합이라는 인민전선의 정치노선에 맞물려 형성된 이러한 지적 분위기에서 문화의 대중화 시도도 본격화되었다. 공산당에 동조하는 지식인이었던 자크 수스텔(*Jacques Soustelle*)<sup>19)</sup>은 1936년 문학과 정치 주관자인 『금요일』(*Vendredi*)에 「살아 있는 박물관: 대중문화를 위해」라는 제목의 논고를 게재했다. 그는 “인민 전선의 정치 및 사회 운동에 맞추어 [...] 광대한 문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문

16) Vincent Dubois, *La Politique culturelle*, pp. 157-159.

17) *Ibid.*, p. 161.

18) 1935년 개최된 ‘방어를 위한 작가 대회(*Congrès des écrivains pour la défense*)’나 ‘혁명적 작가 및 예술가 협회(*Association des Écrivains et Artistes Révolutionnaires*)’가 그러한 예들이다.

19) 전간기 비-스탈린계 마르크스주의자였던 그는 ‘반파시스트 지식인 감시 위원회(*Comité de vigilance des intellectuels antifascistes*)’에 가입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임시 정부 내각에서 장관직을 역임한 후, 알제리 전쟁 당시 알제리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화의 문을 열자. 가난한 자들에게 금지된 아름다운 공원처럼 특권 엘리트에게 국한된 문화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부수자. 우리는 문화를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문화유산들을 요구해야 한다”<sup>20</sup>)며 대중에게 문화를 개방할 것을 주장했다. 인민전선 시기 ‘문화정책’, ‘문화 프로그램’, ‘문화 계획’이라는 용어들이 지식인 잡지들인 『금요일』이나 『유럽』(*Europe*)에 자주 등장했는데, 이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문화 운동(mouvements culturels)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술 분야에서도 문화의 대중화에 대한 요구들이 등장했다. 1888년부터 1891년까지 국립미술학교의 학장이었던 구스타브 라로망(Gustave Larroment)은 이미 “오페라와 오페라-코미크가 더 많은 대중에게 접근하기 쉬운 곳”<sup>21</sup>)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오페라의 대중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간기에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1937년 ‘대중음악연맹(Fédération musicale populaire, FMP)’의 임원이자 쟈빌리에의 오페라 예술국장인 다니엘 라자뤼스(Daniel Lazarus)는 교육부 장관에게 「오페라-코미크 국립극장의 파리 근교 대중 공연 조직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근교 코뮌 행정부의 주도로 개최될 이 공연의 목적을 “대중들에게 서정적인 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sup>22</sup>)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대중은 음악, 박물관, 정원, 건축을 누릴 권리가 있다”<sup>23</sup>)며 예술의 대중화를 선언했다. 음악의 대중화의 구체화는 인민전선 시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음악협회들이 정치의식을 가지고 이

20) *Vendredi*, 1936년 6월 26일자.

21) Jacques Charpentreau, *Pour une politique culturelle*(Paris: Les Éditions Ouvrières, 1967), p. 12.

22) Sylvie Rab,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Jacques Girault (dir.), *Ouvriers en banlieue, XIX<sup>e</sup>-XX<sup>e</sup> siècle*(Paris: Les Éditions de l’Atelier, 1998), p. 413.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 그는 오페라 단원들이 주중 한가한 요일에 그들의 악기와 기타 기구들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와서 공연할 것을 제안했고, 오페라 단장인 자크 루셰(Jacques Rouché)는 시의 지원으로 대규모 대중극장 설립을 계획하기도 했다.

23) *Europe*, 1936년 5-6월호.

를 실현하려고 했다.<sup>24)</sup>

문화의 대중화는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역 행정부의 문화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전간기 정부의 ‘문화에 대한 개입(intervention culturelle)’은 ‘문화정책’이라 표현되지 않고, ‘여가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sup>25)</sup> ‘여가정책’은 1936년 5월 총파업의 결과로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주 48시간 근무제와 3주간의 유급 휴가’로 인한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능해졌고,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것을 비롯해 스포츠와 휴가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대중의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인민전선 정부는 박물관 관람 시간 연장 및 입장료 인하, 국립 극장 입장료 인하 및 축제일 무료 공연 그리고 박물관 및 극장 시설 확충 같은 정책을 추구했다. 따라서 인민전선의 이러한 정책은 국립미술학교 학장이 1937년 언급한 것처럼 여가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지속한 오류를 끝내는 것을 성공한 것”<sup>26)</sup>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오페라, 극장, 박물관, 시네마테크 등의 국립화에도 불구하고, 여가정책은 일부 코뮌을 제외하고 공공 재정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협회들이나 사적 단체의 지원을 받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성립되지도 않았다. 인민전선 당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도적 뒷받침도 마찬가지였다.

인민전선 시기 문화의 대중화와 동시에 시도되었던 것은 ‘예술의 탈중앙화’였다. 예술활동위원회(Conseil d'action artistique)는 인민전선 정부에 의해 ‘예술의 탈중앙화’라는 소명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이것은 제3공화국 초기 정부가 문화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며 예술가들에게 예술을 전임한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정부의 방임이 오히려 “파리의 예술 독점”<sup>27)</sup>을 야기한 것이었다. 따라서 19세기 말 정부는 예술

24) Pascal Ory, *La politique culturelle du Front populaire français, 1935-1938*, p. 611.

25) Vincent Dubois, *La Politique culturelle*, p. 163.

26) *Ibid.*, p. 164.

27) Philippe Poirrier, Sylvie Rab, Serge Reneau, *Jalons pour l'histo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locales*, p. 40.

에 대한 간섭을 강화시키고 파리의 독점에 대항해서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전시회들을 시도했으나, 파리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들에 대한 권리를 파리 예술협회에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연극의 대중화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인민극장’의 설립으로 실현시키려 했으며, ‘연극의 탈중앙화’는 1911-1912년 구상되어 192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는데,<sup>28)</sup> 이로 인해 지방에 예술센터들이 설립되었다. 결국 인민전선 시기 예술활동위원회의 설립은 19세기 말 이후 고수된 정부의 의지였으며, ‘예술의 탈중앙화’는 파리의 엘리트 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예술의 대중화와 연관이 있었다.

### III. 셴 도 코뮌들의 문화정책의 목적

지역 행정부가 사회정책 또는 문화정책으로 도시 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1926년 11월 5일 법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은 코뮌들이 공공서비스의 목적으로 협동회사나 상업회사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든지 공영의 형식으로 직접 경영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공공서비스의 내용으로 지역민의 식량 및 주택 보급, 구호, 위생, 사회공제조합, 도시계획 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행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문화 분야까지 넓게 잡을 것인지의 여부가 전간기 내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논쟁은 코뮌 행정부의 문화 활동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고, 사회적 측면의 공공서비스와 달리 문화적 측면의 공공서비스는 강제력이 없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보건-위생, 교육, 공공주택 등을 다루는 사회정책과 달리 문화정책은 셴 도의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셴 도의 모든 코뮌에서 시행되지도 않았다. 일부 코뮌에서는 문화 활동이 점차적으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정착된 반면, 다른 코뮌에서는 여전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셴 도에서 문화정책은 주민들이 문화시설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보다는 문화시설 이

28) *Ibid.*, p. 42.

용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었는데, 오래전부터 문화를 전유해 온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생활에 대한 보조, 즉 문화의 대중화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장, 오페라, 미술관 등 문화시설들이 일찍이 설립되어 문화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파리와 달리, 파리 교외는 전반적으로 1930년대까지 ‘문화적 황무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황무지 교외에서 전간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코뮌을 중심으로 시의 ‘문화에 대한 개입’이 서서히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문화정책은 “교회와 같은 적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루어졌다.”<sup>29)</sup> 정당의 입장에서는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지지를 얻고, 이로써 지방 선거(les élections municipales)에서 시청을 장악하는 것이 당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보조 수단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코뮌 행정부들은 문화정책을 주민들의 여가 활용을 위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져야 함을 의식하고 있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기도 했던 문화정책은 때로 과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1937년 9월 11-13일 젠빌리에(Gennevilliers)에서 개최된 국제 음악 콩쿠르는 코뮌 행정부의 과시 정책을 보여 준 사례였다. 지역 차원의 음악 대회는 전간기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목표로 기획되었지만, 이 콩쿠르의 참여자들은 시장과 시의원들 이외에 이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혀 없었고, 대회 심사자들도 아마추어들의 연합인 대중음악연맹의 관계자들이라기보다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명사들이었다. 이 콩쿠르의 개최는 대중의 참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명사들이 참가하는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었던 것이다. 당시 젠빌리에 시에게 중요한 것은 공산주

29) Jacques Girault, “Les interventions socioculturelles dans les municipalités communistes de la banlieue parisienne”, *Des communistes en France, année 1920-année 1960*(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2), p. 365.

의 시청도 이런 것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콩쿠르를 통해 타 지역민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상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어 중간계층의 호감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sup>30)</sup> 공산당 계열의 지역신문인 『서부 교외 노동자』(*Le Travailleur de la banlieue ouest*)는 “이러한 불거리의 정점은 확실히 국제 음악 콩쿠르일 것”<sup>31)</sup>이라며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기사를 내서, 시정(市政)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산당의 시정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했다.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은 다음 선거를 의식한 것이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도심에서 벗어나 교외에서 생활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파리의 주택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좁은 도심보다는 교외에서 자연 생활과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주민들은 야외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문화 협회에 가입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의 이러한 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센 도의 각 코뮌들은 문화 협회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시설의 공백을 메우려고 했다. 문화 협회의 대표적인 것으로 연극 단체, 음악협회, 스포츠 클럽, 아마추어 영화협회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 행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은 힘든 노동을 하는 시민들에게 잠시라도 일상생활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축제였다. 파리의 동쪽 근교에 위치한 코뮌인 바뇰레(Bagnolet)에서는 전통적인 축제였던 포도 축제가 시에 의해 유지 및 발전되었고, 파리 서쪽 근교의 낭테르(Nanterre)에서는 같은 이유로 장미 축제 같은

30) Sylvie Rab,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p. 419.

31) *Le Travailleur de la banlieue ouest*, 1937년 4월 10일자. 이 신문은 파리의 서쪽 근교에 위치한 4개의 코뮌, 아니에르(Anières), 젠빌리에(Gennevilliers), 빌뇌브-라-가렌(Villeneuve-la-Garenne), 부아-콜롱브(Bois-Colombes)의 소식을 전하는 공산당계 신문이다.

사라졌던 축제가 부활되기도 했다. 파리 북쪽의 생-드니(Saint-Denis)에도 17세기부터 유지된 전통 축제로서 장미 축제가 2월 2일에 열렸다. 생-드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제는 랑디(Landy) 축제로 6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었으며, 가장 행렬이 열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진열대가 보름동안 시내에 설치되었다.<sup>32)</sup> 10월 1일부터 15일 동안 개최되는 생-드니 축제 역시 인기가 많았는데, 이 축제 기간 동안 주요 대로인 카르노(Carnot) 대로와 펠릭스-포르(Félix-Faure) 대로에 상인들의 진열대 설치가 시의 의해 허가되었다.

1935년 7월 7일 아르장퇴이(Argenteuil)에서 개최된 ‘어린이 방학 축제’의 목적을 통해서도 코뮌 문화정책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인 『뤼마니테』(*L'Humanité*)는 아르장퇴이 시장 뒤푸이(Dupouy)가 언급한 축제의 목적을 기사로 다루고 있다. 뒤푸이에 의하면 이 축제는 어린이들이 방학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아르장퇴이 시장은 “시청은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집입니다. [...] 매년 개최되는 이 축제를 위해 무료로 전기가 제공되므로, 광장 주위 장터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sup>33)</sup>라고 연설했다.

1937년 4월 ‘젠빌리에 축제’ 역시 비슷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시청을 “모두를 위한 집”이라고 표현한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지역신문 기사는 젠빌리에 축제의 목적 중 일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바자회를 동반한 행사는 지역민들에게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인근 지역민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상인들을 즐겁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sup>34)</sup>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축제는 젠빌리에 시라는 이름을

32) Jean-Paul Brunet, *Saint-Denis, la ville rouge: socialisme et communisme en banlieue ouvrière, 1890-1939*(Paris: Hachette, 1980), p. 319. 이외에 생-드니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프레엘 축제(Pleyel, 5월 1-15일)와 플랜-생-드니 축제(Plaine-Saint-Denis, 8월 1-15일)를 들 수 있다.

33) *L'Humanité*, 1935년 6월 23일자.

34) *Le Travailleur de la banlieue ouest*, 1937년 4월 10일자. 개최된 축제에는 40여 개의 단체들과 3천여 명의 행사 관계자들이 참가했고, 수많은 콘서트들이 다

외부에 알리는 좋은 기회였으며, 인근 도시들 간의 소통을 증가시켜 쉐넬 도라는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sup>35)</sup> 또한 시의 이러한 문화정책은 쟈빌리에가 더럽고 오염된 파리 근교의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결국 이것은 쟈빌리에 시청의 업적에 기여했다.

축제는 좌파와 우파 코뮌 구별 없이 조직되었고 주로 지역민들의 여가 생활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정치적 색깔이 짙은 축제들도 조직되었다. 공산주의 시청의 지원을 받은 지역 공산주의 세포조직이 준비한 축제들은 새로운 형식의 문화 축제를 추구했다. 1937년 생-고뱅(Saint-Gobain)<sup>36)</sup> 공장의 세포조직은 ‘왈츠의 꿈’이라는 작은 오페라를 공연했고, 기존의 다른 공연들과는 달리 공연 중에 수많은 닭고기를 관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의 목적은 다음날까지 가족 단위로 축제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한편 지역의 파업 노동자들이 색다른 방식으로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1936년 6월 파리 동쪽 근교 보비뉴(Bobigny) 지역 축제에 참여한 파업참가자들은 그들의 진열대를 마련하여, 금속 공장의 모형을 전시했다.<sup>37)</sup> 모형 안에는 투명한 빛으로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사항들인 40시간 노동제, 단체협약(contrats collectifs), 인민전선 등의 글자들이 보이도록 만들었다.

문화정책은 여가의 건전한 활용과 도덕적인 목적으로 구상되기도 했다. 1920년 1월과 1921년 6월 보비뉴 시의회(conseil municipal)는 쉐넬도 경찰청에 무도회장 폐쇄를 요구했는데, 무도회가 이 코뮌에 위험한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고 지역민들을 폭력행위에 휘말리게 할 수

---

양한 구역에서 열렸으며, 소규모의 연주단들이 시청을 향하여 행진한 후 시청 광장 앞에서 집결하는 퍼레이드를 선보였다.

35) Sylvie Rab,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p. 409.

36) 1665년 루이 14세의 재무장관 콜베르에 의해 ‘왕립 거울 매뉴팩처’로 설립되었다. 이 매뉴팩처는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의 유리를 생산하기도 했고, 거울과 유리컵을 주로 생산했다.

37) Annie Foucaut, *Bobigny, Banlieue rouge*(Paris: les Editions ouvrières, 1986), p. 185.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무도회를 금지한 후 보비뉴 시가 대중에게 제공했던 것은 정치적이고 도덕적 성향의 영화 상영이었다.<sup>38)</sup> 한편 1935년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쟈빌리에 시는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 영화 관람을 기획했다. 이 때 코뮌 행정부는 영화 상연의 목적을 “실업자들을 거리와 나쁜 무리의 위협으로부터 보호”<sup>39)</sup>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화 활동의 담당자들은 이 분야에서의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며 노동자들의 자유 시간의 활동을 한 분야에 집중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여가 센터(Centre de loisirs)’에서의 활동을 통해, 시는 “사회적 여가가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기보다, 여가 활동을 통해 대중들이 여가, 공부, 예술, 여행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카페나 나쁜 유혹에 노출되고 충분한 정보의 부족으로 여가 시간을 망치고 있는 대중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sup>40)</sup>고 밝히고 있다. 달리 말하면 코뮌 행정부는 문화정책을 통해 여가 시간의 건전화를 표방하며, 문화 활동 속에서 ‘진정한 문명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시의 문화정책은 교육적인 것이었다. 1935년 지방 선거를 위한 통합사회당 선거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부분은 대중 교육 그리고 실습에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파리 서쪽의 쉬렌느(Suresnes)의 시장은 저가의 공공주택국(HMB)의 국장으로 유명한 사회주의자 앙리 셀리에(Henri Sellier)였고, 그는 문화기관의 공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쉬렌느의 영화관 명칭은 ‘시립 교육 시네마’였고,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처음부터 단순히 여가를 위한 영화관이라기보다, 교육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영화 상연을 위한 예산은 시의 교육 예산에서 충당되었고, 영화 프로그램 소개 역시 ‘쉬렌느 시립 대중 교육 서비스’라 표현했다. 이것은 쉬렌느 시립 영화관이 제3공화국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새롭고 다채로운 교육의 길을 찾으려는 의도로 시정의 상징이 되려고 했던 것을

38) *Ibid.*

39) Sylvie Rab,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p. 412.

40) *Le Travailleur de la Banlieue Ouest*, 1937년 6월 4일자.

보여준다.<sup>41)</sup> 따라서 교육을 담당했던 부시장 피에르 발레트(Pierre Valette)는 시립 시네마의 목적을 ‘교육과 건전한 오락의 역할’이라고 규정했다. 1933년 설립된 쉬렌느의 ‘시립 대중 교육 및 여가 사무소(Office municipal d’Education populaire et des loisirs)’는 일종의 지역 행정부 주도의 새로운 양식의 정책 연구소였다.

#### IV. 문화 프로그램

전간기 코뮌 행정부에 의해 운영되었던 지역 문화 활동기관들로 인해 시청은 문화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sup>42)</sup> 셴 도에서 도시의 문화적 기능을 담당했던 기관들은 다양했다. 문화정책은 시에 소속된 문화기관들을 통해 수행되기도 했지만, 학교, 다양한 조합, 공산당과 산하기구, 문화협회 등 외부 기관에 의해 고무되고 관리되기도 했다. 시는 연극 단체, 뮤지컬 팀, 오케스트라 팀, 스포츠 단체 등에 위임하여 문화적 기능을 담당케 하기도 했고, 영화관 경영자에게 영화 상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례로 생-드니 시는 1938년 문화협회들을 비롯한 79개의 단체들에 지원금을 제공했다.<sup>43)</sup>

셴 도 코뮌들의 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다. 쥘빌리에의 경우를 살펴보면, 1936년 시에서 기획했던 ‘여가 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별될 수 있다.<sup>44)</sup> 첫 번째는 교육 분야인데, 산업 디자인 수업, 설계 수업, 외국어(영어, 독일어, 에스파냐어) 수업, 살림 및 바느질 수업, 속기 및 회계 수업 등이 있었다. 두 번째는 여가 생활 분야로, 도서관 이용, 당구, 체스, 카드, 탁구, 춤, 스포츠, 연극, 회화 등을 포함했다. ‘여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강생

41) Sylvie Rab, “Le cinéma dans l’entre-deux-guerre: une politique culturelle municipale impossible? L’exemple de Suresnes”, *Le Mouvement Social*, no. 184(1998), p. 80.

42) Jean-Paul Brunet, *Saint-Denis, la ville rouge: socialisme et communisme en banlieue ouvrière, 1890-1939*, p. 319.

43) *Ibid.*, pp. 319-320.

44) Sylvie Rab,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pp. 417-418.

자료들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는 여가 생활 분야보다 수감 인원이 적었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적게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문화시설을 갖추려고 노력했다. 시청에서 마련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문화시설은 우선 다양한 문화 활동 또는 모임이나 토론회를 위한 홀(salle)이었다. 클리쉬(Clichy)에는 1935년 프롤레타리아 통일당(Parti d'Unité prolétarienne) 소속 시장에 의해 '인민의 집(Maison du Peuple)'이라는 복합시설이 건축되었다. 보비뉴 시는 제1차 대전 직후 '라 시테(La Cité)'라 불리는 회의실을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했으나, 1936년 노후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인해 재건축 작업을 거쳐 대규모 축제 홀을 포함하는 '인민의 집'을 완성했다.<sup>45)</sup> 일반적으로 '인민의 집'에서는 정치적 행사나 노조의 행사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무도회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진행되었다. 다양한 기능을 지닌 홀 이외에 주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해 시에서 갖추려고 한 것은 영화관, 콘서트 홀, 그리고 스포츠 시설이었는데, 영화, 음악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은 전간기 문화의 대중화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이었다.<sup>46)</sup>

## 영화

영화 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했고,<sup>47)</sup> 점차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활동이 되었다. 새로운 여가활동이자 신기술을 보여주는 영화는 연극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으므로 대중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 1920년대 중반 시립 영화관의 관람 비용은 좌석에 따라 1,50프랑에서 4프랑으로 다양했고, 1935년 센 도의 평균 영화 관람

45) Annie Foucaut, *Bobigny, Banlieue rouge*, pp. 184-189.

46) 오페라, 연극이나 미술전시회는 상대적으로 부르주아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47) 예를 들면 생-드니에는 1921년 3개의 영화관이 있었고, 그 중 가장 큰 '라 케르메스(La Kermesse)'는 천 명을 수용했으며, 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다른 코뮌들도 상황은 유사하여 1919년 클리쉬에 1개, 네이이(Neuilly)에 2개, 콜롬브(Colombes)에 3개, 르발루아(Levallois)에 5개가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불로뉴(Boulogne)에는 다소 많아 11개가 있었다.

비용은 2프랑에서 7프랑이었다.<sup>48)</sup> 관람객 수가 많았던 파리에서는 영화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연되었던 반면, 교외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로 주말에만 상연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일부 코뮌에서는 월요일 저녁에 절반 가격으로 영화를 상연하기도 했고, 1935-1936년 일부 코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휴관할 정도로 상영시간이 늘어났다. 이 중 가장 관람객이 많은 요일은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은 일요일 오후였으며, 월요일에는 절반 가격으로 입장이 가능했지만 관객이 거의 없었다.<sup>49)</sup> 이것은 다음날 일하는 노동자 관객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인데, 전간기 주 5일제 근무를 채택한 작업장이 드물었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의 영화 상영도 인기가 별로 없었다.

영화는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었는데, 초반에는 뉴스나 다큐멘터리처럼 심각한 장르의 것이었고, 중반은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였으며, 후반은 전·후반으로 이루어진 드라마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으므로 영화 상영시간이 3-4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고, 대부분 영화관은 2개 이상의 영화를 상영했다. 한편 1920년대 영화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 상연은 최소 3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를 동반했다. 이들은 영화를 시작할 때 또는 영화의 막간에 연주를 했다. 1929년경 센도 영화관들에 유성 영화가 도입되었다. 유성 영화의 도입은 당시 획기적인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 해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유성 영화 관람을 거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쉬렌느의 신문 『쉬레누아』(Suresnois)는 1930년 11월 30일 “이것은 음악 예술의 쇠퇴이다. 프랑스 문화가 위협에 처해

48) 일부 코뮌에서는 실업자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 관람을 실시하거나 절반 가격으로 관람하게 했으나, 쉬렌느 같은 일부 코뮌에서는 실업자를 위한 가격 할인이 없었다.

49) Sylvie Rab, “Le cinéma dans l’entre-deux-guerre: une politique culturelle municipale impossible? L’exemple de Suresnes”, p. 83. 한편, 영화 관람이 일 년 내내 인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 6월부터 9월 초까지 여름 바캉스 기간은 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있다. 음악가들의 연주 대신에 축음기를 듣기 위해 영화관에 가지는 마세요”라고 적고 있다. 무성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유성 영화가 도입 초기부터 우위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다.

시의 지원으로 상연되는 영화들도 일반 영화관들과 영화구성 면이나 상연시간 면에서 유사했다. 초기에는 주로 시의 지원을 받은 영화협회에 의해 시의 홀에 임시적으로 영화장치가 설치되어 상연되었다. 시에서 설립한 시립 영화관도 존재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쉬렌느(Suresnes) 시의회는 1920년 12월 30일 회의의 결과 시립 영화관 설립을 결정했다. 이 영화관은 시의 ‘축제의 홀’에 설립되었으며, 시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 영화관이었다. 시의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상연되는 영화들도 일반 영화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영화동호회인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Le<sup>s</sup> Amis de Spartacus)’에 의해 상연되었던 정치적 성격을 띤 소비에트 영화들도 있었다.

1928년 3월 9일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의 창설<sup>50)</sup>은 대량생산 영화에 대한 예술 영화의 보호를 위한 심미적 이유와 부르주아 질서를 유지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상업 영화에 반대하는 정치적 이유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서였다.<sup>51)</sup>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의 활동은

50) Dimitri Vezyroglou, “Le Parti Communiste et le cinéma: Nouveaux éléments sur l’affaire Spartacus (1928)”,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115(2012), p. 65. 이 영화동호회가 설립된 것은 국제노동운동의 전락인 동시에 유럽 영화의 발전에서 기인했다. 1927년 유럽의 공산당들은 국제 선전영화 상연을 위해 베를린에서 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공산주의 영화 동호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유럽 영화계는 새로운 경향의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은 상업적이고 틀에 박힌 듯했고, 독일 영화는 침체 상태에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에 의해 상연된 소련의 영화는 유럽 영화계에 신선한 소재를 가져다주었고,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은 프랑스 영화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51) *Ibid.*, p. 66. 한편, 이 시기 프랑스 공산당의 대중 공략 전략도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보다 영화라는 매개체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24년 소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좌파연합(Cartel des gauches)과 달리, 국민연합(Union nationale)은 공산주의에 대한 비타협정책을 추구하고, 푸앵카레 정부의 내무부 장관 알베르

길지 않았다. 정부는 1928년 10월 무허가 영화 상영을 금지했고, 동회회의 본부는 파리 경찰청장의 지시로 폐쇄되었다.<sup>52)</sup>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의 주요 인물이자 『뤼마니테』의 영화비평가였던 레옹 무시낙(Léon Moussinac)은 강력하게 이 폐쇄에 항의했지만,<sup>53)</sup> 그 내용은 정치적인 것이기 보다 영화인으로서의 입장에서 소비에트 영화를 감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다. 공산당은 이 폐쇄에 크게 개입하지 않았는데, 1927년 말 코뮌테른에서 채택된 ‘계급대 계급(classe contre classe)’ 전술로 인한 계급투쟁의 급진화로 영화관의 프티부르주아 관객에 회의적이었고, 노동자 관객의 참석이 저조한 것에도 주시하고 있었다.

단기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쿠스의 친구들’은 영화광들의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소비에트 영화는 인민전선 시기 쁠 도의 다양한 코뮌들에서 상영되었다. 1921년 보비뉴의 시스-루트(Six-Routes) 길에 설립된 영화관 ‘에투알-시네마(Étoile-Cinéma)’에서는 시의 지원으로 1935년 4월 소련의 영화 『즐거운 소년들』(*Les Joyeux garçons*)을 상영했는데, 소비에트 체제에서도 즐거움은 계속된다는 내용이었다.<sup>54)</sup> 또한 영화협회인 ‘소련의 친구들(les Amis de l’U.R.S.S.)’ 역시 소비에트 영화 상연을 기획했는데, 근교에서 『어머니』나 『전함 포템킨』 등을 상연했다. 시의 지원으로 영화가 상연되는 경우 “모든 노동 대중이 영화

---

사로(Albert Sarraut)의 이름에서 유래한 ‘알베르 사로 정책’은 1927년 8월 공산당의 주도하에 발생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코(Sacco)와 반제티(Vanzetti) 처형 반대 연대파업에 대한 진압으로 극에 다다랐다. 이후 프랑스 공산당은 일시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과 시위를 포기하고, 다양하고 강도 높은 선전 전술인 영화로 시선을 전환했다.

52) *Ibid.*, p. 74. 프랑스 정부는 영화의 확산을 국가 안보 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영화를 감시하려고 했다. 영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두려움과 무시 사이를 오갔는데, 영화를 ‘악의 학교’로 간주했다.

53) *L’Humanité*, 1928년 10월 28일자.

54) Annie Foucaut, *Bobigny, Banlieue rouge*, p. 185. 소련의 영화 이외에 정치적 성격을 띤 영화로 프랑스 대혁명 1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장 르누아르(Jean Renoir)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를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는 1939년 7월 11일 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보비뉴 ‘인민의 집’에서 상영되었다.

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sup>55)</sup> 입장료는 저렴했다.

센 도의 일부 코뮌 행정부들은 영화를 통해 근대 문화 시설을 공영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와 교육적인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기능에서 상업적인 성격을 떨 수밖에 없었고, 시립 영화관의 저렴한 비용은 시에 재정 적자를 가져다주었다. 재정 적자는 결국 시 행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사립 영화관들이 시를 상대로 시청은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지역 행정부의 문화정책과 공공서비스의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sup>56)</sup> 시와 사립 영화관의 대립은 경제 위기로 관객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심화되었다. 영화는 전간기 대표적인 문화 활동이며 대중문화 발전에 주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영화관 경영은 시 행정에 있어 문화적·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었다.

## 음악 활동

대중에게 인기 있는 또 다른 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음악 활동이었다. 전간기 센 도에서 활동했던 음악협회들의 종류를 일부 코뮌들의 예를 들어 살펴보자. 생-드니에는 8개의 음악협회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생-드니 어린이 합창단’, ‘플랜-생-드니 하모니’, ‘생-드니 음악 연합’ 그리고 ‘생-드니 리라 교향단’이었고, 이외에 3개의 아코디언 그룹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sup>57)</sup> 생-드니 시는 지역민들의 음악 활동 후원을 위해, 이들 음악협회들에게 지원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비뉴의 경우 1921년 시립 오케스트라

55) *La Voix de l'Est*, 1936년 4월 24일자.

56) 원심은 코뮌의 공공서비스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코뮌에게 패소를 선언했고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쉬렌느의 시립 영화관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운영을 중지했다.

57) Jean-Paul Brunet, *Saint-Denis, la ville rouge: socialisme et communisme en banlieue ouvrière, 1890-1939*, p. 320.

인 ‘시립 하모니’가 창립되었고, 다양한 음악협회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협회 중 시의 후원을 받는 ‘여학교 합창단’이 규모가 컸는데, 여학교 학생들과 이 학교 출신 선배들로 구성되었으며, 파리와 파리 근교에서 공연을 했다. 젠빌리에에서는 1871년 시립 오케스트라인 ‘라 젠빌루아즈(La Gennevilloise)’가 급진주의 시청에 의해 설립되었다. 1935년 공산주의 시의회는 새로운 오케스트라인 ‘시립 하모니’ 설립에 투표했는데, “시의 필요시 항상 의무적으로 요청에 응할 것”<sup>58)</sup>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반면에 시는 악기, 유니폼,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주었고, 새로운 악기나 악보 구입 그리고 악기 수리 등을 담당했다. 대체로 지역에서 활동했던 음악협회들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아코디언 그룹 같은 특정 악기 클럽이었다.

음악협회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 일부 코뮌 행정부들은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오페라 공연을 기획했다. 라자루스는 지역민들에게 오페라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젠빌리에 축제의 홀’을 오페라 공연에 맞게 개조할 것을 제안했다. 이 홀은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홀이었지만, 오페라를 공연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수많은 지역민들이 입장할 경우 앞서사람들로 인해 공연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초대형 거울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절반은 거울을 통해 공연을 감상한다는 것이었다.<sup>59)</sup> 또한 그는 재정적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젠빌리에 시가 공연 홀과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고, 정부가 무대장치나 무대장식 부분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기획은 재정적인 문제와 주중의 공연이 다음날 노동자들의 출근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신 소규모 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이 기획되었다. 이러한 소규모 오페라 공연은 근교에서 자주 기획되었다.

한편 오케스트라나 다양한 음악클럽에서 연주자나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음악학교도 시에 의해 설립되었다. 코뮌 행정

58) Sylvie Rab,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p. 409.

59) *Ibid.*, p. 413.

부들은 이 음악학교 설립 목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더 이상 엘리트의 특권이 아니며 대중도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1935년 11월 당시 파리에서 활동하던 대중음악연맹의 한 임원은 쟈빌리에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동자 계층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인민 대중들도 부르주아들이나 귀족들처럼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다”<sup>60)</sup>고 쓰고 있다. 따라서 시립 음악학교의 등록비는 완전히 무료이거나 저렴했다. 특히 공산주의 코뮌 행정부는 음악학교 등록비를 무상으로 책정했고, 완전한 공공서비스로 규정했다. 음악학교의 수업 프로그램은 음악 이론, 계명으로 노래하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연주, 오페라를 포함했다. 센 도 코뮌들의 음악학교들은 점차 대중음악연맹에 가입했고, 이로써 음악협회의 활동은 확산되고 다양해졌다.

하지만 영화 상연과 달리, 음악활동은 시의 ‘문화의 대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해야 했다. 우선 음악학교의 강사진이나 시립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및 단원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음악학교의 수강생이 많지 않았는데, 지역 신문을 통해 자주 단원들이나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음악학교는 또한 노동자계층에서 더 호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음악학교의 학생들은 노동자들의 자녀들이기보다 상인들, 수공업자들, 사무원들 또는 자유직의 자녀들이었다. 왜냐하면 등록비는 무료였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현악기를 소유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 스포츠 활동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파리와 교외에는 스포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존재했다. 이 시설들은 주로 체육관, 펜싱 경기장, 승마장, 실내 수영장이었고, 1880년대 도입되기 시작한 육상 경기장은 1890년대 점차 확산되었다. 하지만 육상 경기장은 넓은 부지를 필

60) *Ibid.*, p. 411.

요로 했기 때문에 주로 도심 밖에 설립되었고, 도심에는 사적으로 경영되는 펜싱 클럽이나 레스토랑-카페에 딸린 당구장이나 공놀이장이 전부였다.<sup>61)</sup> 1914년 이전 스포츠 활동은 주로 개인적으로 또는 일부 후원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친목 도모 목적을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고, 경기장 인근의 카페는 자주 탈의실로 이용되었다. 반면 시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사회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욕탕 시설이 전부였다.

1919년 3월 14일 ‘도시 팽창과 재개발에 관한 법’은 스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 계획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1925년 3월 25일 ‘공공 이익을 위한 무 건축(non bati) 사유지 공용징수에 관한 법’은 앞의 법을 보완하여 스포츠 시설 건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게다가 1925년 지방 선거에서 통합사회당의 승리는 이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설립된 스포츠 시설은 코뮌 행정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했고, 대규모 스포츠 시설은 시정 활동의 현저한 진보를 보여주었다.<sup>62)</sup> 위생 문제와 함께 스포츠 활동은 지역민의 건강 유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비위생적인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시의 입장에서 스포츠 시설의 설립은 도시 재개발과도 연관이 있었다.

1907년 설립된 ‘사회당 스포츠 연합(Union Sportive du Parti Socialiste)’은 프랑스 대중 스포츠의 시작으로 알려졌다. ‘사회당 스포츠 연합’ 회원의 급격한 성장과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클럽의 성립은 1909년 8개 클럽이 모인 ‘사회주의 육상 스포츠 연맹(Fédération Sportive Athlétique Socialiste)’의 창설로 이어졌다.<sup>63)</sup> 사회주의 육상 스포츠 연맹의 설립자들이 사회주의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연맹은 노동 계층에게 “당과 함께 발전하고, 당을 위해 선전과 당원 모집의 중심지가 될 여

61) Jean-Paul Callède, “Réseaux d'équipements sportifs, innovation culturelle et fonctionnalité urbaine”, *Histoire, économie & société*(feb. 2007), pp. 77-78.

62) *Ibid.*, p. 79.

63) Nicolas Kssis, “La politique sportive des municipalités communistes de banlieue entre les deux guerres: l'exemple du football”, Jacques Girault (dir.), *Des communistes en France, année 1920-année 1960*, p. 376.

가 센터”<sup>64</sup>)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했다. 통합사회당은 지역 스포츠 클럽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파리 북동쪽 교외인 파비용-수부아(Pavillons-sous-Bois) 통합사회당 코뮌은 축구장을 건설을 위한 부지를 축구 클럽에 양도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은 스포츠 계에도 적용되었다. 1919년 ‘사회주의 육상 스포츠 연합’은 ‘노동자 스포츠 연맹(Fédération Sportive du Travail)’이 되었고, 다수파인 공산주의 계열이 이 연맹을 주도했다. 1923년 소수파인 사회주의 계열의 스포츠 클럽들은 ‘적색 스포츠 인터내셔널(Internationale Rouge des Sports)’에 가입을 거부하며, 1925년 ‘노동자 스포츠 및 체육 협회 연합(Union des Sociétés Sportives et Gymniques du Travail)’을 설립했다. ‘노동자 스포츠 연맹’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스포츠 연맹임을 자처했으며, 공산당은 당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 스포츠 연맹에만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이 지령은 파리 지역에서는 잘 지켜졌지만, 지방에서는 ‘노동자 스포츠 연맹’의 영향력이 약했다.<sup>65</sup> 공산주의 코뮌들은 이 지령을 실현시키는 주요 수단 역할을 했고, 낭테르의 에투알 스포르티브(Etoile sportive de Nanterre)나 바노의 노동자 클럽(Club ouvrier de Bagneux)은 이러한 배경에서 설립되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보조금 책정은 정파에 관계없이 모든 시의회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스포츠 시설의 확충은 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sup>66</sup> 코뮌 행정부들은 교외의 넓은 부지를 이용해

64) *Le Socialiste*, 1909년 5월 9일자.

65) Nicolas Kssis, “La politique sportive des municipalites communistes de banlieue entre les deux guerres: l'exemple du football”, p. 378.

66) 시 차원에서 설립된 운동 시설이외에, 파리 16구, 17구 등에 가톨릭교구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들이 있었다. 지방민들이나 이민자들도 그들의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파리 소재 브르타뉴 지역민들의 스포츠 연합은 빌취프에, 파리 소재 스위스 스포츠 연합은 파리 12구에 설립했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동자들을 위해 설립한 스타디움들도 있었는데, 백화점 갤러리 라파예트(Galeries Lafayette)는 보비니에, 포도주 회사인 니콜라(Nicolas)는 매종-알포르(Maisons-Alfort)에, 노르 철도회사(Compagne du Nord)는 센-에-우아즈(Seine-et-Oise) 도(道)에 기업 소유의 운동장을 가지고 있었다. 가톨릭교구나 “회사가 운영하는

서 스타디움을 주민들에게 선사했다. 이브리(Ivry)에는 1926년 레닌 스타디움이 설립되었고, 빌쥐프(Villejuif)에는 1934년 칼 마르크스 스타디움이 설립되었다. 이외에 센 도의 여러 코뮌들이 스타디움을 설립했는데, 오베르빌리에(Aubervilliers), 클리쉬, 르 페로(Le Perreux), 생-드니, 티에(Thiais) 등에 시립 스타디움이 설립되었다. 스타디움 이외에 시에서 설립한 스포츠 시설로는 수영장을 들 수 있다. 1920-1930년대 파리에 15개의 수영장이 설립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1924년 13구에 설립된 뷁트-오-카이유(Buttes-aux-Cailles) 수영장과 1933년 19구에 설립된 파이에롱(Pailleron) 수영장이 있다. 근교에 위치한 시립 수영장으로 대표적인 것은 1933년 공산주의 시의회의 결정으로 건축된 피에르피트(Pierrefitte) 수영장과 1935년 결정되어 1937년 완공한 팡탱(Pantin) 시립 수영장을 들 수 있다.

센 도의 코뮌들은 스포츠 클럽 지원 정책도 폈는데, 전간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코뮌들은 스포츠 클럽의 본부를 시청 건물에 설립하도록 허가했다. 이브리의 노동자 스포츠 연합(Union Sportive du Travail d'Ivry),<sup>67)</sup> 빌쥐프의 노동자 체육 클럽(Club Athlétique Ouvrier de Villejuif), 라이-레-로즈의 스포츠 청년단(Jeunesse Sportive de L'Hay-les-Roses) 등의 본부가 시청에 설립되었다. 코뮌 행정부는 스포츠 클럽에게 시의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했는데, 젠빌리에 스포츠 연합(Union Sportive de Gennevilliers)은 1927년부터 9년간 이러한 특혜를 받는 대신, 체육 시설 건설 및 유지와 보수를 담당했다. 스포츠 클럽들은 시에게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낭테르의 에투왈 스포르티브는 1924년부터 시의회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sup>68)</sup> 생-드니에는 1930년대 적어

스타디움이 설립된 것은 특히 1930년대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체육 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Julien Sorez, “Du terrain à la buvette: diffusion du football et contrôle social en région parisienne durant l’entre-deux-guerres”, *Le Mouvement Social*, no. 238(2012), p. 73.

67) 이 클럽은 창설 시기부터 상당한 규모로 15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지도부는 젊은 층이었다.

68) Jacques Girault, “L’implantation du parti communiste dans la région parisienne”,

도 18개의 스포츠 클럽이 있었는데, 축구 클럽 1개, 자전거 클럽 3개, 럭비 클럽 1개, 오토바이 클럽 2개 등이 시청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sup>69)</sup>

## V. 맺음말

1920년대 센 도의 코뮌 행정부들은 그동안 엘리트나 부유층의 특권으로 간주되었던 문화 활동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정책을 시도했다. 문화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다양했다. 다음 선거에서 시청을 장악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지역민들의 편의나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에 이바지 및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중산층의 지지를 얻을 목적, 건전한 여가 활용과 도덕적인 목적, 그리고 대중 교육적인 목적 등을 포함했다. 1930년대 들어 코뮌 행정부의 문화정책은 확대되었는데, 특히 인민전선 시기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코뮌들에서 이루어졌다. 시청에 의해 시도된 문화대중화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영화 관람, 음악 활동, 스포츠 활동, 축제 등이었다.

센 도의 도시들은 ‘여가 센터’라는 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시의 이러한 문화 활동 조직이 항상 지역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문화 활동 기획자들과 지역민들을 분리시키는 벽 같은 것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그러했다. 당시 시의 기관지는 자주 여가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도박장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초기 문화사업을 구상했던 코뮌 행정부들은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직면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문화사업과 그 원인을 밝혀

*Sur l'implantation du Parti communiste dans l'entre-deux-guerres*(Paris: Editions sociales, 1977), p. 89.

69) Jean-Paul Brunet, *Saint-Denis, la ville rouge: socialisme et communisme en banlieue ouvrière, 1890-1939*, p. 320.

내고 참여했던 주민들을 분석해서 사회계층별 선호도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한편 시청에서 주도하는 문화 사업에 대해 대중이 수동적으로만 대처한 것은 아니었다. 코뮌의 지역민들은 시에서 내려오는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적 연설과 동떨어진 그들의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시를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아니 푸코(Annie Fourcaut)가 보비뉴 지역 연구에서 밝혀낸 것이기도 했다.<sup>70)</sup>

전간기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거의 부재했던 문화정책이 코뮌 차원에서 서서히 등장하는 시기로 간주될 수 있다. 코뮌 행정부들이 시도한 문화정책이 노동자 문화를 창출하거나 당원들이 원했던 바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교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에 기여했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교외의 코뮌들이 끊임없이 노력했던 파리의 공동묘지나 쓰레기장으로 간주되었던 교외의 이미지 변신에 기여했다. 그리고 시의 문화정책은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교외의 지역민들에게 다소나마 문화생활을 향유하게 해주었고, 잠시라도 일상생활을 잊어버리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부경대학교 사학과 강사)

〈투고일자: 2020. 1. 21, 심사일자: 2020. 2. 16, 게재확정일자: 2020. 2. 16〉

▶ **주제어** : 전간기(interwar period), 센 도(department of Seine), 문화정책(cultural policy), 시 행정(municipal administration), 대중화(popularization)

70) Marc Lazar, “L’invention et la désagrégation de la culture communiste”, *Vingtième Siècle*, no. 44(1994), p. 15.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La Banlieue Ouest.*

*Bulletin municipal officiel de la Ville de Paris.*

*Europe.*

*L'Humanité.*

*Le Socialiste.*

*Suresnois.*

*Vendredi.*

*La Voix de l'Est.*

DATAR(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La politique culturelle des agglomérations*(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1).

Île-de-France,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Médiation culturelle et politique de la ville*(Paris: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 2003).

## 2. 연구문헌

Brunet, Jean-Paul, *Saint-Denis, la ville rouge: socialisme et communisme en banlieue ouvrière, 1890-1939*(Paris: Hachette, 1980).

Callède, Jean-Paul, "Réseaux d'équipements sportifs, innovation culturelle et fonctionnalité urbaine", *Histoire, économie & société*(feb. 2007).

Charpentreau, Jacques, *Pour une politique culturelle*(Paris: Les Éditions Ouvrières, 1967).

Corbin, Alain, "Temps des loisirs, espaces de la ville", *Histoire urbaine*(jan. 2000).

Djian, Jean-Michel, *La politique culturelle, la fin d'un mythe*(Paris: Gallimard, 2005).

Dubois, Vincent, *La Politique culturelle*(Paris: Belin, 1999).

Fourcaut, Annie, *Bobigny, Banlieue rouge*(Paris: les Editions ouvrières, 1986).

Girault, Jacques, *Des communistes en France, année 1920-année 1960*(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2).

\_\_\_\_\_, *Sur l'implantation du Parti communiste dans l'entre-deux-guerres*(Paris:

- Editions sociales, 1977).
- Greffe, Xavier et Pflieger, Silvie, *La politique culturelle en France*(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15).
- Lazar, Marc, “L’invention et la désagrégation de la culture communiste”, *Vingtième Siècle*, no. 44(1994).
- Moulinier, Pierre, *Les politiques publiques de la culture en France*(Paris: PUF, 1999).
- Ory, Pascal, *La politique culturelle du Front populaire français. 1935-1938*, Thèse d’histoire(Université Paris-10, 1990).
- \_\_\_\_\_, *La belle illusion. Culture et politique sous le signe du Front populaire*(Paris: Plon, 1993).
- Poirrier, Philippe, Rab, Sylvie, Reneau, Serge, *Jalons pour l’histo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locales*(Paris: Ministère de la culture, 1995).
- Poteau, Gérard, *Gérer les activités culturelles de la commune*(Paris: Les Edition de l’Ateliers, 1996).
- Rab, Sylvie, *Culture et banlieue. Les politiques culturelles dans les municipalités de la Seine, 1935-1939*, Thèse d’histoire(Université Paris-7, 1994).
- \_\_\_\_\_, “Gennevilliers communiste et la culture”, Jacques Girault (dir.), *Ouvriers en banlieue, XIX<sup>e</sup>-XX<sup>e</sup> siècle*(Paris: Les Éditions de l’Atelier, 1998).
- \_\_\_\_\_, “Le cinéma dans l’entre-deux-guerre: une politique culturelle municipale impossible? L’exemple de Suresnes”, *Le Mouvement Social*, no. 184(1998).
- Sorez, Julien, “Du terrain à la buvette: diffusion du football et contrôle social en région parisienne durant l’entre-deux-guerres”, *Le Mouvement Social*, no. 238(2012).
- Vezyroglou, Dimitri, “Le Parti Communiste et le cinéma: Nouveaux éléments sur l’affaire Spartacus (1928)”,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115(2012).

〈Résumé〉

**Ville et culture: la politique culturelle du département de la Seine  
(1919-1939)**

Eun-Ha LYU

Depuis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l'intervention des pouvoirs publics, Etat et collectivités locales, croît dans le secteur social et culturel. L'intervention municipale dans le domaine culturel s'est progressivement imposée comme une nécessité dans certaines municipalités dans l'entre-deux-guerres, alors qu'elle restait à la marge dans la plupart des autres municipalités. En fait les rares communes, en général communistes ou socialistes, tendaient de développer une politique culturelle dans le domaine du théâtre, du cinéma, de l'activité musicale et du sport. L'entre-deux-guerres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une période où se développe la décentralisation culturelle ou popularisation de la culture par des politiques culturelles municipales.

〈Abstract〉

**City and Culture: The Cultural Policy in the Department of Seine  
(1919-1939)**

Eun-Ha LYU

Since the First World War the intervention of public power, like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y, develop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sector. The intervention of municipality in the culture field became gradually necessary in some municipalities in the interwar period, although most of the municipalities didn't intervene in the cultural sector. Generally the communist or socialist communes tried to develop a cultural policy in the sector of theater, movie, music and sports. The interwar period might be the age when the cultural decentralization or the popularization of culture developed by the cultural policy of the municipalities.